

# “재유행 정점은 20만명” 예상치 하향...휴가철 확산 ‘복병’

### 8월 중순~말 28만명→1~2주내 20만명

### “휴가철 검사 감소...변이 위험 과소평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20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공식화했다. 당초 8월 중순~말 최대 28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정부는 당초 예측치인 하루 최대 30만명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 검사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도 높은 만큼 당분간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월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경란 청장

은 지난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BA.2.75(켄타우로스) 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증가세도 다소 둔화됐다”며 “예상보다 낮은 20만명 수준의 정점이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번 주 유행의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면서 “유행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1~2주 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점 도달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유행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조

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를 많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진자는 20만명에 그치더라도 실제 감염자 규모는 그 2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A.5 변이는 전파력이 빨라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비슷해 고위험군만 확진되는 환자들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 “현재 하루 최대 10만명 규모라고 해도 실질적인 감염자는 20만~30만명일 것이고 휴가철이 지나면 8월 하순에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보고될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배에 달할 것이고 방역 당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

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휴가철이라 유증상자 대비 검사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변이 BA.5와 BA.2.75의 전파력과 재감염 위험이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다”면서 “실제 확산세가 감소한 것인지는 1~2주 정도 더 기다려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경란 청장은 숨은 감염자 우려에 대해 “(검사) 놓치는 감염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많을 것이고, 증상이 더 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는 그럴 경우가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60세 이하 무증상자의 검사비가 비싸 숨은 감염자들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2일부터 무증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비 5000원을 내면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무증상자는 3만~7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 목소리도 나온다. 감염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

다. 통상 1~2주 뒤 위중증 환자가, 2~4주 뒤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순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2주 뒤인 3월 말에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1300명대로 늘었으며, 사망자 수는 3월 하순 하루 469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름철을 맞아 대규모 공연이나 축제 등이 많은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경각심이 다 풀렸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방역수칙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감염자가 늘면 결국 미접종자 등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지난 4월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 만큼 오미크론 유행 때와 같이 하루 40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관제전문위원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독감의 치명률은 0.03%인데 오미크론 6차 유행 치명률은 0.06%”라며 “4차 접종을 하면 고위험군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 있다. 0.06%의 치명률이 0.05% 혹은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주말 무더위 식혀주는 '비'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린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광주 도심서 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7월 31일 택시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은행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대인시장

방면)에서 길을 건너던 B(7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배회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 ‘확진자 재증가’ 광주·전남 6일째 4000명 이상...누적 확진자 120만 7404명 기록

### 사망자 광주 575명·전남 508명 등 총 1083명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일째 4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7월 31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284명(해외 26명), 전남 2195명(해외 10명) 등 총 4479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 격리병상·재택치료 조치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일일 확진자 4000명 이상은 6일째 이다.

지난달 24일 2099명(광주 1107명·전남 992명)이후 25일 4861명(2314명·2547명), 26일 5527명(2890명·2637명), 27일 4887명(2469명·2418명), 28일 4747명(2381명·2366명), 29일 4488명(2172명·2316명)을 기록했다.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3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

57만1262명, 전남 63만6142명 등 총 120만740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광주 575명, 전남 508명 등 총 1083명이다.

광주의 경우 5명이 위중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9명 입원, 재택치료 2110명이다.

전남은 전남 확진자 2195명 중 60대 이상이 536명(24.4%)이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17개소에서 21명(1.0%)이 감염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384명, 여수 371명, 목포 309명 등 3개 지역에서 300명대를 넘었으며 나주 222명, 광양 171명, 무안 125명, 영광 69명, 해남 59명, 화순 53명, 장성 50명, 담양 48명, 영암 39명, 고흥·함평·완도 35명 각 35명, 보성 32명, 곡성 31명, 장흥 28명, 강진·신안 각 26명, 진도 24명, 구례 23명이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